



비식민화의 주체 여운형

2025.1.21.

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2. 3.1운동과 대일 교섭
3. 상하이의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 혁명
4. 우가키 총독 통치와 조선중앙일보 사장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6. 자치론과 건국동맹
7. 해방과 친일 의혹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19세기가 제국의 시대라면 20세기는 비식민화(decolonization)의 시대.
- 1960년 유엔은 총회결의 제1514(X V)호로서 ‘식민 지역 및 인민에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을 채택. 약칭 ‘비식민화 선언’.

“모든 인민의 자결권을 존중하여 신탁통치 지역을 포함한 모든 비자치 지역과 독립을 얻지 못한 지역에 즉시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따라 독립과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최근에는 'decolonization'을 '탈식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
- '비식민화'라는 낱은 번역어를 되살려 쓰는 이유.

(1) 정치적, 제도적 식민지 철폐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로 후식민(postcolonial) 상황에서 정신적,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 '탈식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식민지 제국이 해체되는 정치적, 제도적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2) 탈식민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를 강조한다면, 비식민화는 19세기적 식민 통치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피식민자의 저항과 식민자의 대응이 빚어낸 시대적 흐름에 주목.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유럽의 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정치적, 제도적 식민지를 만들어 영역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 식민화는 이미 비식민화의 방향을 내포. 효율적인 지배와 수탈을 위해 여러 식민지에서 개발 정책을 실시 → 산업의 발달과 교육의 보급은 민족의식의 자각을 낳음.
- 제1차 세계대전이 결정적 계기. 제1차 세계대전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 식민지 인민까지를 동원한 총력전 → 전쟁으로 각성된 민족의식은 민족운동의 분출로 이어짐.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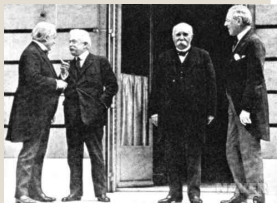
-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은 민족자결과 무배상·무병합 원칙을 담은 즉시 강화를 주장하는 ‘평화에 관한 포고’를 발표.
- 1918년에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잇달아 민족자결 원칙을 표명.
- 파리강화회의가 열린 1919년 봄에서 초여름까지 세계 각지에서 민족운동이 분출.

3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규모 시위와 동맹휴학.

4월, 인도 간디가 주도하는 비폭력 저항운동 개시.

5월, 중국의 주권 회복을 내건 5·4운동 전개.

3.1운동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비식민화는 점차 현실화.

아일랜드는 독립전쟁을 벌인 끝에 1922년 영연방 자치령인 아일랜드자유국으로 거듭남.

1919년 12월 인도에서는 인도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한 인도통치법이 시행.

1922년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령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
중국에 대해서도 워싱턴회의의 결과, 산둥 권익을 중국에 반환하고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한다는 9개국 조약 체결.

미국 식민지인 필리핀은 1916년에 자치를 인정받았고,
1934년에는 10년 후 독립을 약속 받음.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제국 질서에 동요와 변용을 가져왔다.
1920~30년대, 과정으로서의 비식민화(decolonization) 개시.
- 3·1운동에 놀란 일본, '한국병합' 이래 무단통치를 비판하고 '문화정치'를 표방.

총독 무관제 폐지,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이행, 지방의회 설치, 한글 신문 허가, 제한적 정치 활동 허용 등의 개혁

→ '문화정치'는 비식민화의 한국적 표현, 식민지 이후(post-colonial)를 예고.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1919년 10월 총독부 경찰이 작성한 ‘민심 동향’에서는 조선인의 움직임을 ‘자치파’, ‘동화파’, ‘독립파’ 셋으로 나누어 분석.
- 유엔 1960년 총회결의 제1541(X V)호에서는 ‘비자치 지역’이 ‘완전한 자치’에 이르는 길로서 ‘독립 주권 국가 수립’, ‘독립 국가와 자유로운 연합’, ‘독립 국가와 통합’ 등 세 가지를 제시.

A Non-Self-Governing Territory can be said to have reached a full measure of self-government by:

- (a) Emergence as a sovereign independent State;
- (b) Free association with an independent State; or
- (c) Integration with an independent State.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식민지 조선에서 비식민화의 세 가지 길.

[동화] 민원식이 이끈 국민협회의 참정권 운동.

[자치] 최린, 송진우(동아일보)의 자치 운동. 이광수의 논설.

→ 총독부는 '동화'를 표방하고 '자치'를 검토.

[독립]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신간회.

⇒ 모두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 변화를 중시.

지난 세기적인 식민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비식민화의 방향을 놓고 각축.

이상, 줄고, 『3.1운동과 비식민화』, 한국역사연구회 편, 『3.1운동 100년 (3)』(2019)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모순적 실천
 - 3.1운동의 기획자, 도쿄를 방문해 독립을 호소.
 - 상해 임시정부의 주역, 상해 한인 사회의 지도자.
 - 조선공산당 운동의 숨은 지도자.
 - 중국 국민 혁명과 코민테른의 공작자.
 -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서 식민지 근대를 구가.
 - 중일전쟁기 일본 최고위층의 종전 공작에 관여.
 - 식민지 말기, 표면에서는 자치론 주장, 이면에서는 건국동맹 조직.
- ⇒ 여운형을 비식민화의 주체로서 파악하고자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여운형 친일파 논란

- 「여운형의 친일과 조선중앙일보 폐간 속사정: 좌우 가리지 말고 똑같은 잣대들이대야」, 『신동아』 2010.1.

◦ 해방 직후 우파 논리의 재판

- <좌-우>, <친일-반일>이 얽힌 상황에서 『친일인명사전』(2009)을 <우=친일> 선동으로 이해한 보수 우파가 <좌=친일>의 사례로서 여운형을 들고 나옴.



1. 비식민화의 시대 20세기

- 역사학계가 그려온 여운형 상

- 좌우 통합을 보이는 데 주력. 친일 논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 → 역사학계의 친일파 비판이 여운형 친일파론으로 되돌아옴.

- 여전히 남겨진 질문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펼친 ‘접근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여운형의 ‘자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여운형의 실천은 독립, 자치, 동화를 아우르는 비식민화라는 틀로 이해해야.

- 사회주의자, 국제주의자로서 여운형.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1914년 망명 전까지 계몽운동 종사, 목사로 활동.
- “한국정부의 폐정을 목격하여 격분하고 있던 내게는 한일합방에 대해 어떠한 분개도 없었다.”(피고인신문조서 제2회, 565)
-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나는 여러가지로 그 전쟁의 원인을 탐구해 보았다. 그 결과 한일합방은 합방으로 인해 조선민족이 압박당하고 있기에 동양의 평화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 후 세계대전도 끝나고 새로운 기운이 휘몰아왔기에 그것을 이용하여 동양평화를 위해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그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공판조서, 597)

→ 여운형의 독립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식민화 흐름의 영향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1918년 11월 상해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측근 크레인의 연설회 참가를 계기로 신한청년당 명의로 독립 청원서 작성. 신한청년당은 터키청년당을 모방. (공판조서, 616쪽)

- “『독립신문』은 여운형이 크레인에 게 보낸 청원서가 한국독립운동의 첫 ‘발단’이었으며,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장덕수·여운형·김철·선우혁·서병호를 파리·일본·러시아령·국내로 파견함으로써 “정숙(표면상)하던 韓土 삼천리에 장차 일대풍운이 起할 兆가 有하더라”라고 평가했다.”

(정병준,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2019.2., 52~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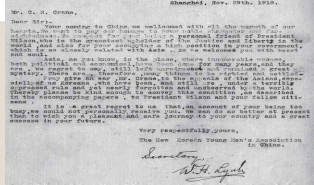
〈표 2〉 1919년 1~2월 신한청년당 밀사의 국내외 파견상황

일시	이름	활동	출처
1919. 1. 16	장덕수	신규식으로부터 동경·서울 잠입 지시 받음	장덕수, 1919년 진술
1919. 1. 19	김규식	남경에서 김순애와 재혼, 당일 상해행, 신한청년당 6명 한국, 일본, 만주, 시베리아 잠입 개시	김규식 자필이력서
1919. 1. 20	여운형	간도·시베리아로 출발, 1~2일 전 장덕수, 일본행	여운형, 1929년 진술
1919. 1. 25	선우혁	국내로 출발	
1919. 1. 27	장덕수	상해 출발, 동경행, 2. 3 도착, 2. 17 서울행	장덕수, 1919년 진술
1919. 2. 1	김규식	상해 출발, 파리행	김규식, 자필이력서
1919. 2. 1	신한청년당	여운형·김규식·김철·선우혁·한진교·장덕수·신석우·서병호 회동, 김규식(파리), 여운형(만주·노령), 김철·선우혁·서병호(국내), 장덕수(동경·서울)로 출발	독립신문, 1919. 8.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여운형 작성 청원서의 내용

- 서론 일부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으로 정의, 인도, 자유에 기초한 승리가 되었다. (중략) 일본은 세계 평화의 장애물이다. 일본의 대륙 확장 정책은 한국 점령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일본 육해군의 거점이 되었다. 한국은 4,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이나 평화를 사랑해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병합되었다.”
- 본론에서 한국 상황을 정신, 정치, 경제 세 측면에서 설명. 「2. 정치적 방면」에서는 한국인의 권리 없는 납세, 중앙의회·지방의회 전무, 한국인의 행정 참여 불가능 등을 적시. (정병준, 「3·1운동의 기폭제: 여운형이 크레인에게 보낸 편지 및 청원서」, 『역사비평』 119, 2017.5., 246~247쪽)
-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기대, 일본의 중국 침략을 고발. 한국 상황에 대해 참정권 부재를 언급 ⇒ 독립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참정권과 자치 부재를 고발. 동화, 자치, 독립은 적어도 논리상으로는 하나의 방향(비식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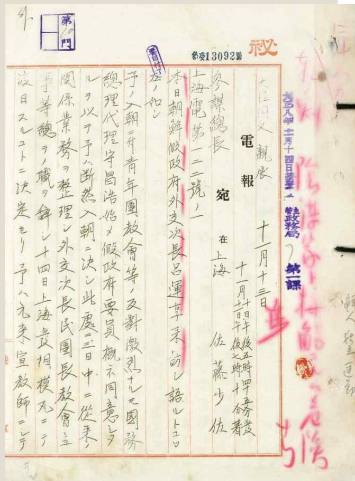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여운형, 1919년 11월 일본 척식국 장관 고가 렌조(古賀廉造)의 초청으로 도쿄 방문.

“나의 입조(入朝)에 대해 청년단, 교회 등의 반대 격렬하지만, 국무총리 대리 안창호를 비롯한 가(假)정부 요원 대개 동의함으로써 나는 단연 입조를 결정”

“나는 일본을 배제하고 일을 벌이는 것은 조선인 영원한 이익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어 나는 독립하는 것을 미국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운형→상해 주재 일본 육군 소좌, 1919.11.10.)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하라(原) 내각을 대표한 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중심이 되어 여운형을 초청.
- 도쿄에서 여운형은 정계, 관계 인물은 물론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등과 교류.
- 척식국 장관 고가는 여운형과 면담에서 자치운동을 제안. 여운형은 완전 독립이 필요하다며 거부.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1919년 11월 27일 여운형의 제국호텔 연설

“日本이 率先하여 朝鮮의 獨立을 承認하는 날이면 朝鮮은 마땅히 日本과 親善할 것이다. 우리의 建設國家는 人民이 主人이 되어 人民을 다스리는 國家일 것이다. 이 民主共和國은 大韓民族의 絶對的 要求요, 世界 大勢의 要求다.”

“朝鮮 獨立問題가 解決되면 中國 問題도 容易하게 解決될 것이다. 일찍이 朝鮮 獨立을 위하여 日清戰爭과 日露戰爭을 했다고 하는 日本이 그때의 聲明을 無視하고 스스로 約束을 어겼으니, ‘韓華’ 두 民族이 日本에 대해 怨恨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夢陽呂運亨全集 1』, 한울, 1991)

→ 한국의 독립이 '세계 대세'라면서 이를 일본 정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중국 문제와 연동시킴.

2.3.1 운동과 대일 교섭

- 조선인 사이에는 식민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따라서 일본을 교섭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원적인 저항의식 ↔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조선 혹은 조선인의 주체성을 일체 돌아보지 않았던 무단통치와 짝을 이룸.
- 이광수, 조선인에게 ‘정치적 생활’이 없는 이유로 총독부의 탄압과 아울러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 자치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을 지적. (『민족적 경륜』 1924.1)

民族的經綸 (二)

政治的結社와運動

『사람은 政治的인 動物이라』 한
은 넘어 陳腐한 格言이라 그러
나 二十世紀의 今日에도亦是
사람은 政治的인 物이다 人事의
모든 現象中에 只今도 尙人
生의 興味를 有는 것이 政治인 것
은 新聞을 보면 알 것이오 또 가
장 著明한 名聲을 가진 자가 政治
家인 것을 보아도 알 것이다
自由의 思想이 普及이 되사록
政治는 民衆化하여 農民이나
勞働者外지도 政治的인 權利를 獲
得하게 된다. 이리하여 사람은
더욱 더욱 政治的인 動物이 되는 것
이다

二

그런데 朝鮮民族은 只今 政
治的인 生活가 없다. 아마 二千萬에
達하는 民族으로 全히 政治的인 生
活를 缺한 자는 現在世界의 어
느구석을 차자도 有할 것이오 또
有史以來의 모든 史記에도 없
는 일이다 實로 奇怪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轉近數十年來로 朝鮮
民族에게는 政治的인 自由思想이
무거운 勢力으로 浸潤되어서
政治生活의 慾望이 日날 獨立
國家生活를 하던데 보다 熾烈
하게 되었다 이것은 尙當然한
일이다

三

그런데 왜 只今에 朝鮮民族
에게는 政治的인 生活가 없다. 그대
답은 가장 單純하다. 日本이 韓
國을 併合한 이래로 朝鮮人에게
는 모든 政治的인 活動을 禁止한 것
이 第一인 것이오 併合以來로 朝
鮮人은 日本의 統治權을 承認하
는 條件이 되어서는 모든 政治
的인 活動即參政權 自治權의 運動
것은 勿論이오 日本政府를
對手로 하는 獨立運動조차도
願치 아니하는 強烈한 節制意識
이 있었던 것이 第二인 것이다

이 두가지 原因으로 只今까지
에 하였던 政治的인 運動은 全히
日本을 敵國視하는 運動뿐이었
었다. 그럼으로 『이런種類의 政
治運動은 海外에서나 만일 國內
에서 한다면 秘密結社의 일
수밖에 없었다』

2. 3.1운동과 대일 교섭

- 이동휘는 여운형의 도쿄 방문을 반대.
“내가 일본 정부의 초대를 받자 국무총리 이동휘는 내가 일본 정부에 매수되어 변절한 것으로 생각해서 극력 반대했지만 내가 초대에 응해 동경에 갔기 때문에 매우 감정이 상했다.”(피고인신문조서 제3회, 571)
- 이동휘의 태도야말로 이광수가 말하는 ‘절개 의식’.
- 여운형의 도쿄 방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한 비식민화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3. 상하이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 혁명

- 임시정부, 신한청년당,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에서 활동
 - 1920년 5월 코민테른 공작원 보이틴스키 만나 고려공산당 가입.
 - 1920년 8월 중국을 방문한 미국 의원단과 교섭.
 - 1921년 5월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상해 지부.
 - 1922년 1월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대회 참가. 레닌, 트로츠키 등과 면담.
 - 1923년 1월 임시정부 개편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참가. 개조파.
- 식민지 조선의 '문화 정치'와 상해 한인 자치
 - 인성학교 교장, '고려교민친목회'(1919년 가을 약 700명) 총무.

3. 상하이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 혁명

- 중국 국민 혁명 참가

- 1925~1928 상하이 타스통신 근무. 코민테른 공작원.

- 1926년 1월 중국 국민당 제2차 당대회에서 베트남의 호치민과 함께 축하 연설.

- 1928년 4월 상하이에서 열린 대만공산당 결당식 참석.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그 영향은 실로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매일 보고 있는 중국 혁명에 관계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혁명가와도 관계하고 그 운동에 참가하는 식으로 되었던 것이다.”(공판조서, 여운형전집 1권, 599)

→

3. 상하이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 혁명

- 국공합작 결렬

- 1927년 4월 장제스의 쿠데타. 국공합작 결렬, 공산당 불법화.

- 1927년말 코민테른 조직 상하이에서 철수.

- 동남아시아 경험

- 1928년부터 푸단(復旦)대학 교원, 야구팀 감독. 동남아시아 순회.

- 필리핀에서 강연.

“이 낙원지가 소수 백인종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 실로 유감스럽게도 참을 수 없다. 우리들 아시아인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여운형전집 제1권, 429쪽)

4. 우가키 총독과 조선중앙일보 사장

◦ 체포와 귀국

- 1929년 7월 상하이 공동조계 안에서 푸단대학과 규슈제국대학 야구시합 중에 체포.
- 『申報』 등 중국 신문, 중국 국적인 여운형 체포에 항의하고 외교 교섭에 의한 석방 요구. 영자신문 등 “만일 아일랜드 이민이 미국에 입적하는 것을 영 정부가 항의한다고 해서 워싱턴에서 입 다물고 있겠는가.” “영국이면 불령 영인이 외국 입적한다면 오히려 좋아할 텐데 일본은 이와 반대다.”(강덕상, 여운형평전 제3권, 12~13쪽)
- 나가사키를 거쳐 서울로 이송.

4. 우가키 총독과 조선중앙일보 사장

◦ 여운형의 귀국 감상

- “그리운 조선으로 돌아가려 해도 입국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오고야 만 이상 (중략) 동포와 함께 조선에서 노력해 보고 싶다.”(공판조서, 599쪽)

- “합법적으로 민족해방운동에 정진할 생각이다. 만일 그것도 용인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고향에서 밭이나 일굴 뿐이다.”(검찰조서, 550쪽)

◦ 여운형 귀국에 대한 우가키의 회고

“그는 한국을 떠나 상해로 갔지만, 내가 한국에 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했다. 나는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상해에서 돌아 오면서 그는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46년 9월 18일 조사, 박태균, 『버치문서와 해방정국: 미군정 중위의 눈에 비친 1945~1948년의 한반도』, 역사비평사, 2021, 294쪽).

4. 우가키 총독과 조선중앙일보 사장

◦ 조선중앙일보 사장 취임.

- 1932년 7월 가출옥 석방. 1933년 2월 조선중앙일보 사장 취임.

◦ 우가키 총독, ‘훌륭한 일’이라고 쾌락.

“만일 내게 대한 비난이 민간에 유포되거든 기탄 말고 솔직히 내게 일러주어 상의하기를 바라노라”(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 128쪽)

※ 조선인 언론을 의식하는 우가키

- 매일신보를 보면 내선융합이 실현된 듯하지만 동아일보를 보면 그 기대가 배신됨. 내지인의 반성이 필요하다고.(1933.1.5.『宇垣一成日記2』, 880쪽)



1935년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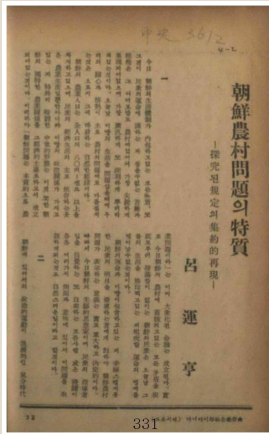
4. 우가키 총독과 조선중앙일보 사장

◦ 농촌 문제 인식

- “토지소유관계에 있어서의 근대적 자본주의적 양식과 소작료 징수 형태에 있어서의 봉건적 양식과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된 농촌경제의 저 유니크한 반봉건적 특질” → 이를 외면하는 “개량주의적 농촌문제관”을 비판. (『조선 농촌 문제의 특질』, 『중앙』 1936.2.[오미일 자료집, 492쪽])

◦ 우가키 총독의 반응

- 여운형을 불러 자작농 창설에 반대하면 곤란하다면서도 “글을 읽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소.(이만규, 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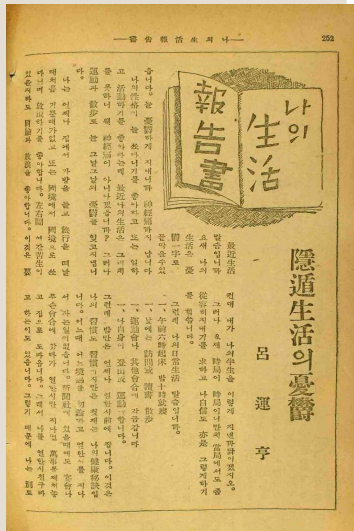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통제 강화와 우울한 생활

“夢陽은 保護觀察所 第一頁 第一行에 錄名된 被保護者이었다. 保護觀察所 開所式 날 夢陽은 中央日報社 社長으로 來賓招待席에 앉았다. 所長은 夢陽더러 「그대의 이름이 名簿 첫 줄에 있는데 오늘 來賓으로 오게 된 것은 奇緣이라」고 談笑하였다.” (李萬珪, 『呂運亨鬭爭史』, 民主文化社, 1946.5, 144쪽)

- 1936년 8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 폐간.

- “요새 나의 생활은 우울한 자로 끝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生活報告書：隱遁生活의憂鬱』, 『朝光』 19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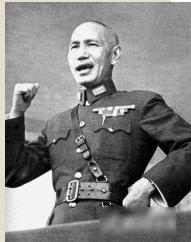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중일전쟁기 총독부는 '내선일체'를 제창.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민족 말살로 이어질 강력한 동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가 지적인 바와 같이 '차별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기대도 존재.
- 1937년 7월 개전 이후 일본군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1938년 10월 우한과 광둥을 점령 이후에도 중국 국민정부가 철저 항전을 고수하자 전선은 교착. → 일본 정부의 '동아신질서' 성명. 중국의 민족주의를 인정하고 일본, 만주국, 중국을 아우르는 일종의 연방제 국가 건설을 제안.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일본에서 동아협동체론, 동아연맹론 등 크게 유행 → 장제스 (蔣介石), 일본이 '日韓 不可分' 등의 말로 한국인을 현혹하여 한국을 '併呑'한 사실을 들며 동아협동체란 '中日合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
- 1939~40년 다수의 조선 지식인, 동아협동체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된 협동체의 원리를 조선과의 관계에도 도입할 것을 주장. 이른바 '협화적 내선일체론'.
- 장제스 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지위에 변화가 없는 한 동아신질서 구상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인들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협화적 내선일체론’을 주창한 김명식(金明植, 1891-1943).
 - 경제면에서 통제경제의 강화와 조선 경제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선에도 일본의 기획원과 같은 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 ‘조선 경제의 참모본부’가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형태였지만 1939년 12월 총독부내에 ‘기획부’가 설치.
 - 정치면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인도의 ‘콩그레스’ 즉 간디 등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같은 조직으로 삼을 것을 주장. 나아가 ‘헌법정치의 준비시설’ 혹은 ‘조선특수’ 헌법의 시행 등을 언급.
 - 조선을 ‘특수(경제)단위’로 만들어 ‘신동아연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치론.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여운형, 1940년 3월 도쿄 방문. 제1군(중국) 참모장 다나카 류기치(田中隆吉) 소장과 면담. 왕징웨이(汪精衛) 정권에 협력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거절.
-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와 만나 중일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오카와가 장제스(蔣介石)의 국민정부를 부인한 데 반해 여운형은 국민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주장.
- 송진우와 함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전 조선총독 면담. 왕징웨이보다는 장제스를 상대로 하여 중국 문제를 수습하라고 권고.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수상에게는 일본이 말하는 '선린외교'는 복종외교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1919년 11월과 1940년 3월의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라는 상황 → 비식민화의 압력이 거세고 중국의 '반일'이 두드러진 시기 → 비식민화의 주체로 등장한 여운형.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여운형, 1941년 심복인 이임수(李林洙)를 통해 콤그룹의 김한성(金漢聲)에게 현금 만 원을 전달(이정식, 『몽양 여운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538쪽).
 - 이동화(李東華)를 통해 학생 그룹과 연결. 갑 서클(李東華, 趙裁鈺, 趙熙英, 尹命儀)은 맑스의 자본론과 라피두스의 경제학, 을 서클(李東華, 金琬淳, 崔成世, 金漢聲)은 라시첸코의 농업경제, 레닌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달을 강독. 학생 그룹은 경성 콤그룹과 같이 활동 중 1941년 8-9월에 검거됨(金學俊, 『李東華評傳 -한 민주社會主義者の生涯-』, 民音社, 1988).
 - 1941년에 체포된 김태준(金台俊), 여운형의 도움을 받아 1943년에 보석으로 석방(金容稷, 『金台俊評傳 -知性和 歴史的 狀況』, 一志社, 2007).
- ⇒ 표면 정치 공작과 이면 독립 운동을 동시에 진행한 여운형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여운형, 1942년 5월 우가키 전 조선총독 겸 전 외무대신 면담.

“여운형 씨가 오랜만에 내방했다. 그의 시국담을 요약하면 (중략) 나는 재작년 말씀하신 장개석과 악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왕조명의 무력함과 그에게 발전할 가망성이 없는 것은 한층 더 명확해지고 있다. 전 중국, 특히 중경 측에서도 영미는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생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략) 만일 일본이 중국마저도 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리 친근하지 않던 인도나 남양의 민족도 일본은 입 끝으로는 공존공영이라든가, 공영권의 확립이라고 하지만 별로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역시 영미에게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1942년 5월 20일, 角田順 校訂, 『宇垣一成日記 3』, みすず書房, 1971, 1502쪽).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여운형, 1942년 4월 18일 미국의 도쿄 공습 목격. 귀국 후 체포되어 1942년 11월 28일 송국.
- 일본 관헌 기록 「呂運亨の朝鮮獨立運動事件」(『思想彙報』 26, 1943.10)에 따르면, 1942년 여름 지인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

“미국 비행기의 성능은 일본 것에 비해서 우수하고, 일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를 따라잡지 못하더라. (중략) 미영이 승리하면 조선 독립은 확실히 된다. (중략)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일본이 물자 부족하기 때문에 뜻밖으로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 (중략) 나도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이 인도와 버마를 해방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방송했다는 것을 들었다. 만일 일본이 지면 조선은 독립될지 모른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조선 대통령의 대우를 받고 있다. 나도 중경이나 미국에 있었다면 조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여운형 판결문, “(피고인은) 일본으로서 이러한 패전의 처지를 피할 것을 원한다면 속히 일본의 중국에 대한 종래의 태도를 내어 던지고, 중국과의 전면적 평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장개석 정권 및 그 정권 치하의 민중들 간에 존재하는 ‘일본은 중국을 제2의 조선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를 일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선 민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조선에 자치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서 중앙 정부 또는 조선총독부 당국에 대해서 중국 문제 해결 방책을 진언했다는 것이다.”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1943년 1월 30일 육군성 과장회의 (『金原節三業務日誌摘要』, 防衛図書館所蔵, 가바라는 육군성 의무과장)
- 憲兵司令官, “朝鮮 獨立運動의 黑幕인 여운형이라는 자를 憲兵이 붙잡아 檢事局에 送付했다. 軍 및 政界에 출입하고 重慶과의 和平運動 促進을 꾀하는 한편, 朝鮮人에게 參政權을 달라, 朝鮮에 自治權을 달라고 주창하고, 大東亞戰爭에서 日本은 반드시 진다고 떠들어 朝鮮 獨立運動을 強調하고 總督政治를 誹謗하고 朝鮮民族의 優秀性を 力說하는 等の 言動에 의함.”
- ⇒ 동화, 자치, 독립이 얹혀 있는 여운형의 실천

5. 중일전쟁과 일본의 종전 공작

◦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위 변동 가능성을 읽은 이극로.
이인과 대화.

“고것들이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참말로 만들자면 이것을” 하고 앉은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근역이란 의미)

“그만 포기하여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만년 가도 두통이지 애산 무슨 묘계 없어?” 내가 말하기를 “누워서 떡을 먹으면 고물이 눈에 들어갈 걸 희생 없이야” 했더니 고루 다시 말하기를

“잠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합해서 그것들에게 알려주고 또 전세계에 광포호소하면 어떠냐?” 한다.

(金鳳基·徐容吉 編, 『愛山餘滴 李仁先生隨筆論評 第二輯』, 世文社, 1961, 41쪽.)

6. 자치론과 건국동맹

- 1943년 7월 5일 출옥. 총독부의 강요와 가족의 권유로 전향서에 서명.
- ‘청년운동’을 둘러싸고 총독부와 교섭.

“小磯國昭는 夢陽에게 靑年運動을 일으킬 터인데 그것을 맡아 指導하여 달라고 要請하였다. (중략) 夢陽은 小磯의 要求를 一言에 拒絕하는 것이 無謀한 짓이라 하여 曲線을 돌아 避할 謀計畫을 썼다. 小磯더러 「내가 推薦하는 靑年 二十名으로 動員, 行事하되 政治도 自由를 주고 警察도 干涉 말게 하면 힘쓰겠다」 하였다. 小磯는 許諾하였다. 夢陽은 高景欽을 시켜 設計書를 作成하여 提出하였더니 이書類가 警務局, 法務局으로 가서 猛烈한 反對를 받아 一種 怪文書로 돌림을 받고 東京 갔던 田中武雄이가 돌아와서 反對를 하였다. 理由는 靑年組織을 呂運亨에게 一任하는 것은 無謀한 짓이오, 危險한 일이라는 것이다. 本町 日本人 居留民 全部가 反對하였다 한다.”(이만규, 앞의 책, 161~162쪽)

6. 자치론과 건국동맹

- “曹秉相, 孫永穆, 伊藤憲郎 輩가 警務局長, 檢事總長, 學務局長의 容許를 얻어 가지고 大和同盟을 組織하고 夢陽을 盟首로 삼으려고 猛烈히 運動하는 것을 夢陽은 反對하였다. 朴春琴 輩가 大義黨을 組織하고 楊州 奉安까지 좇아가서 黨首로 出馬하라고 조르는 것을 一蹴하였다.”(이만규, 162쪽)
- 이만규의 책은 여운형 생전에 출판됨 → 여운형도 총독부와 교섭한 사실 인정. 고경흠이 중심 인물로 등장. ‘대화동맹’, ‘대의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여운형은 1943년 8월 ‘조선민족해방연맹’, 1944년 8월 ‘조선건국동맹’ 등 비합법 결사를 조직(정병준 연구 등).

6. 자치론과 건국동맹

◦ 태평양전쟁기 한국인의 동요

- 유력자의 참정권 요구 분출

- 민중 사이에도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고리로 독립에 대한 기대 분출.

“남방미개의 원주민에게 독립을 부여한 이상 당연 우리들에게도 같은 영예를 달라.”(재만조선인)

◦ 일본 정부의 대응

-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동화정책 강화.

- 중의원 선거 실시 예고.

(표 1) 치안유지법 위반자(동남아 관련)

날짜/절기	직업·연령	거주지	이름	동남아 관련 주요 언급 내용
1943년 6월	교도계대 학생	교토	宋夢奎	칸트라 보스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독립운동의 대두에 대해서 윤동주와 토론,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 조선독립을 내걸어야 한다.
1943년 6월	잡역인부	大阪	金明源	칸트라 보스의 도일 및 자유인도국 성명에 관한 신문보도에 자극받아 조선민중도 조국애의 정신을 발휘하면 독립할 수 있다.
1943년 7월	전 典文 중학생	吳市	島津惠吉	조선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속, 하나의 민족을 가지고 있다. 비마, 필리핀이 독립하고 있는데 조선이 독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943년 8월	노동자	兵庫縣 尼崎市	徳川某	비마는 전쟁협력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했다. 비마는 조선보다도 독립능력이 없는 나라다. 그들이 석유를 주고 독립을 했다면 우리들은 쌀을 주겠으니 독립을 시켜 달라.
1943년 8월	약종상	兵庫縣 尼崎市	金井清治	조선보다도 문화가 낙후된 비마마저도 독립한 이 때에 조선독립을 외치면 된다.
1943년 8월	점토 채굴부	愛知縣	松月富明	남방 비마가 독립한 때에 조선에서도 지금 독립만세를 외치는 자가 없다면 할 수 없다.
1943년 8월	明治學院 高商生	東京	東園康生	이탈리아의 무조건항복에 의해 일본도 점차 패전할 것이다. 비마의 독립에 의해서 조선도 당연히 독립해야 한다.
1943년 9월 (검거)	토공부	華太	安田致賢	남방 제 민족의 독립을 기회로 조선민족의 치열한 요구를 통해서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 것을 확신. 조선독립을 위해서는 인도처럼 치열한 민족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음.
1943년 9월	고물상	兵庫縣 尼崎市	豊田吉蔵	미국이 일본을 취하기만 하면 조선은 독립된다. 일본이 비마, 필리핀을 독립시켜 사령관과 같은 주요한 인물을 두어 민심을 수습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조선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다.
1943년 10월	代書人	兵庫縣 尼崎市	田原良作	필리핀, 비마 독립을 보고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려 하면 각 민족을 해방시키고서야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있는데 왜 조선만은 언제까지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인가

출전: 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五卷, 三一書房, 1976에서 작성

6. 자치론과 건국동맹

- 여운형의 ‘친일’ 행위를 고발하는 회고.
- 팔봉(八峰) 김기진(金基鎭)의 회고. ‘1944년 들어 여운형 측은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정무총감과 접촉하여 신간회와 같은 민족기간단체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운동을 벌였는데, 김기진 자신과 고경흠이 실무를 담당’ ‘1944년 7월 부임한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의 승낙을 얻어 회장 여운형, 부회장 안재홍, 조만식, 사무국장 장덕수로 진용을 갖추고 이름을 ‘新人會’라고 함.’ 김기진 회고에는 박석윤, 권태석도 등장 (홍정선 편, 『金八峰文學全集 Ⅱ -회고와 기록-』, 文學과 知性社, 1988).

6. 자치론과 건국동맹

- 조병옥(趙炳玉) 회고. ‘권태석이 자신에게 흥아동맹(興亞同盟) 본부의 가네코 사다카즈(金子定一) 대좌를 만나보라고 권하며, 여운형과 안재홍은 벌써 흥아동맹 조선지부의 간부로서 협력할 것을 약속’ ‘1945년 해방 직전에 박춘금(朴春琴)이 서울에 와서 ‘大義黨’을 만들고 또 일본에 협력하던 일부 인사들이 자치정부 수립운동을 암암리에 전개’ (趙炳玉, 『나의 回顧錄』, 해동, 1986).
- 이인(李仁)의 회고. “朝鮮總督府의 遠藤 政務總監은 警務局長과 岡 京畿道警察部長에게 지시하여 ○氏는 아직 朝鮮 일부에 聲望이 있는 듯하니 ○氏로 하여금 朝鮮에서의 日本衆議院 議員으로 당선될 자들을 중심으로 御用政黨을 조직하도록 종용했다. 이에 ○氏는 ○○(○在○)를 끌어들여 같이 謀事키로 되어 政綱政策과 發黨宣言文까지 만든 것이 서울 市內 一部人士의 손에까지 들어왔기에 자세히 보았다는 말을 내가 咸興에서 保釋된 직후 入聞하였다. ○氏와 ○○는 黨名을 「朝鮮大衆黨」이라고 작명하여 警務局長에게 報告한 즉 社會主義 냄새가 풍기니 다시 작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氏와 岡 警察部局長[警察部長]과는 絡繹不絕로 왕래하였다.” (愛山同門會 編, 『愛山餘滴 李仁先生隨筆論評 第三輯』, 英學社, 1970, 253~256쪽)

6. 자치론과 건국동맹

- 1945년 당시 衆議院 의원이자 大政翼贊會 산하 大日本興亞會 대륙국장이던 가네코 데이이치(金子定一) 회고.

“우리 대륙국에 지나부가 있어 부장은 神尾茂(朝日) 씨였다. 「전쟁은 졌다. 만주도 조선도 가망이 없다. 하다 못해 일본인의 손으로 독립 조선을」라고 말하길래 나도 전면적으로 그쪽에 기울었다. 일단 나로서는 조선에서 국제관계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래에 공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염원에서 대일본흥아회 조선지부를 만드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

“대일본흥아회 조선지부장 辛日鎔, 부지부장 金乙漢, 동 櫻井茂男, 총고문 呂運亨, 安在鴻 등의 진용으로 중화민국 총영사, 만주국 총영사, 화교 대표, 흥만회 대표 등의 축사를 넣어 발회한 것이 7월 18일” (「在鮮終戰日記抄」 1958.9.22)

- 여운형은 1934년 가네코가 결성을 주도한 조선대아세아협회에 ‘조선인 상담역’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음.

6. 자치론과 건국동맹

◦가네코가 대일본흥아회 조선지부 부지부장이라고 언급한 김을한의 회고,

“내가 중간에서 알선하여 동대문 밖 永導寺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했는데 만날 때마다 가네코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총독부와는 다르니 자기들을 믿고 지부장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몽양과 민세는 일이 매우 중대하니 좀 더 생각해 봐야 하겠으며 ‘지부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본부의 지령대로 해야 되므로 지금은 어떤 약속을 한대도 그것이 장래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지부장은 수락하기가 어렵겠다고 하였다.” (『金乙漢 回顧錄 人生雜記 -어느 言論人の 證言-

』, 一潮閣, 1989, 125-126쪽)

7. 해방과 친일 의혹

- 여운형, 1945년 8월 14일 늦은 밤,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 면담.
- 8월 16일 오후 휘문중학교 연설.
-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해방 후



| 이성백(왼쪽), 이여성(오른쪽)



7. 해방과 친일 의혹

◦ 우익에 의한 여운형 친일 의혹 제기

- 여운형의 전향서 (대동신문 1946.2.17.)

- 학병 권유 기사

大東新聞
1946.2.17 (SUNDAY)
第 1000 號

社說

而民主主義

民主主義의 眞正한 實現은 國民의 自覺과 參與에 依하여 實現되는 것이다. 國民의 自覺은 國民의 權利와 義務에 대한 認識에서 시작된다. 國民의 參與은 國民의 政治生活에 積極히 參加하는 것을 의미한다. 民主主義는 國民의 自由와 平等을 保障하고, 國民의 權利와 義務을 平等히 分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民主主義는 國民의 自覺과 參與을 促하여 實現되는 것이다. 國民의 自覺과 參與은 民主主義의 眞正한 實現을 위한 必經의 道를 行하는 것이다.

趙素昂氏未參은 身病으로 인한 것

國民은 迷惑하지 말라

趙素昂氏가 未參한 것은 身病으로 인한 것이다. 國民은 迷惑하지 말라. 趙素昂氏는 國家의 重要人物이며, 國家의 政治生活에 積極히 參加하고 있다. 趙素昂氏의 未參은 身病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國民은 趙素昂氏의 未參을 誤解하지 말고, 趙素昂氏의 政治生活에 積極히 參加하라.

反省한 呂運亨의 告白

結局은 對支工作의 戰爭犯?

呂運亨은 反省한 告白을 하였다. 呂運亨의 告白은 對支工作의 戰爭犯에 대한 것이다. 呂運亨은 對支工作에 積極히 參加하였고, 對支工作의 戰爭犯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呂運亨의 告白은 對支工作의 戰爭犯에 대한 眞實한 事實을 告白한 것이다.

國際的 諸問題 討議

聯合國總會閉幕

大회는 今秋紐約에서

聯合國總會는 國際的 諸問題에 對하여 討議하고 있다. 聯合國總會는 今秋 뉴욕에서 閉幕한다. 聯合國總會는 國際的 諸問題에 對하여 討議하고, 國際的 諸問題에 對하여 討議한 결과를 報告할 것이다.

蘇軍의 撤退報酬로 經濟的 提案受諾不能

滿洲駐屯軍이 對한 重慶政府 觀望

蘇軍의 撤退報酬로 經濟的 提案受諾不能이다. 滿洲駐屯軍이 對한 重慶政府 觀望하고 있다. 蘇軍의 撤退報酬로 經濟的 提案受諾不能은 滿洲駐屯軍이 對한 重慶政府 觀望에 依하여 發生한 것이다.

自傳詩抄

自傳詩抄는 自傳詩의 抄本이다. 自傳詩抄는 自傳詩의 抄本으로, 自傳詩의 抄本으로 整理된 것이다.

哈氏後任으로 스미스氏就任

哈氏後任으로 스미스氏就任하였다. 스미스氏는 哈氏의 後任으로 就任하였다. 스미스氏는 哈氏의 後任으로 就任하여, 哈氏의 職務를 繼承할 것이다.

自傳詩抄

自傳詩抄는 自傳詩의 抄本이다. 自傳詩抄는 自傳詩의 抄本으로, 自傳詩의 抄本으로 整理된 것이다.

自傳詩抄

自傳詩抄는 自傳詩의 抄本이다. 自傳詩抄는 自傳詩의 抄本으로, 自傳詩의 抄本으로 整理된 것이다.

7. 해방과 친일 의혹

◦ 해방 후 미군정의 여운형 ‘친일’ 행위 조사

(박태균, 『버치문서와 해방정국: 미군정 중위의 눈에 비친 1945~1948년의 한반도』, 역사비평사, 2021)

- 1946년 8월 2일 버치 「여운형의 관계에 대해 제안된 조사」 문건 작성. 여운형이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의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보.

◦ 주한미군정에서 파견된 조사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등 전 총독, 니시히로 다다오(西廣忠雄) 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전 정무총감, 이소자키 히로유키 전 조선총독부 경찰국장,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을 심문.

7. 해방과 친일 의혹

◦ 9월 20일 고이소 구니아키

“여운형은 2,600만 한국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항상된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고이소 총독이 압박 없이 한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대해준다면 독립을 위한 자신의 투쟁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88쪽)

◦ 11월 17일 니시히로 다다오

“일본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의 협조를 얻으려고 그와 얘기했다.” “우선 그는 독립을 원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독립과 상호양보의 정신하에 함께 간다.’라는 선언을 원했다. 이것은 자치나 반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302쪽)

7. 해방과 친일 의혹

◦ 최종 조사보고서(1947.1.11).

“우가키의 기억으로는 여운형은 한국 독립이라는 목적을 잊은 적이 없다. 물론 반(半) 정도는 받아들인 적이 있다. 미나미가 우가키의 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아 여운형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여운형이 그렇게 하지 않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경찰국장 니시히로는 여운형에게 100만엔을 주었고, 이는 평화 유지를 위해 여운형의 위원회(건국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박태균의 평가

- 여운형은 일제강점기에 진정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인물(48쪽)

7. 해방과 친일 의혹

- 여운형의 실천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
- 동화, 자치, 독립을 비식민화라는 하나의 판 위에 놓고 파악해야.
- 한국의 독립을 늘 동양평화(중국 문제)라는 세계 보편의 관심사와 연결 지어 호소.
- 목사에서 사회주의자로. 독립의 원천은 신의 뜻(서구 열강의 승인)에서 세계혁명(코민테른의 지원)으로 변화. ※ 황석영의 <손님>
- 국내 활동의 의의를 평가해야. ※ 나미키 마사히토(並木真人)의 '망명자 사관' 비판

